

'광주의 딸' 이미림 내친김에 2연승 간다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메이저 쉐어'로 거듭난 이미림(30·사진)이 내친김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연승에 도전한다.

이미림은 18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6478야드)에서 열리는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올해 2개 대회에서 컷 탈락에 그치는 등 부진에 허덕이던 이미림은 14일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막을 내린 ANA 인스피레이션을 제패, 생애 첫 메이저대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 브룩 헨더슨(캐나다), 넬리 코르다(미국)를 2타 차로 쫓던 이미림은 최종 4라운드에서 행운의 칩인 버디 2개를 낚은 것도 모자라 18번 홀(파5)의 극적인 칩인 이글로 연장전에 합류한 뒤 코르다와 헨더슨을 제쳤다.

3년 정도 샷 난조에 시달리며 2017년 3월 KIA 클래식 이후 LPGA 투어에서 우승 소식

LPGA 포틀랜드 클래식 18일 개막 박성현·박인비·김세영 등 우승 도전

을 전하지 못하던 이미림의 위상은 이 한 번의 우승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이미림은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포인트 60점을 따내 이번 시즌 유일하게 2승을 거둔 다니엘 강(미국·75점)에 이어 '골프 여제' 박인비(32)와 공동 2위에 올랐다.

ANA 인스피레이션 우승 상금 46만5000달러(약 5억5000만원) 만으로 시즌 상금 순위 7위에 이름을 올렸고, 세계랭킹도 지난주보다 무려 73계단 상승해 21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고 자신감을 회복한 만큼 그는 데뷔 시즌인 2014년(마이클 클래식-레인우드 클래식) 이후 6년 만에 LPGA 투어 2승에 도전할 적기를 맞았다.

포틀랜드 클래식과의 궁합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에는 공동 38위에 자리했으나 2018년 공동 9위, 2017년 공동 5위의 상위권 성적을

낸 바 있다.

이번 대회엔 이미림 외에 ANA 인스피레이션을 통해 10개월 만에 LPGA 투어 복귀전을 치른 세계랭킹 4위 박성현(27) 등 한국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우승 경쟁에 나선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와 상금(63만2853달러) 2위를 달리는 박인비, 올해 4개 대회에 출전해 3차례 톱10에 오르고 ANA 인스피레이션은 공동 18위로 마친 김세영(27) 등도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지난해 이 대회에 월요 예선을 거쳐 출전해 준우승했던 재미교포 노예림(19)은 당당히 LPGA 투어 루키가 되어 포틀랜드로 돌아간다.

지난해 프로로 전향했으나 LPGA 투어 회원 자격이 없어 월요 예선으로 포틀랜드 클래식 출전 기회를 얻었던 노예림은 3라운드 단독 선두로 나서 첫 우승 꿈을 부풀렸으나 4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해나 그린(호주)에게 밀려 준우승한 바 있다.

ANA 인스피레이션 연장전에서 이미림에게 겨 겨 공동 준우승한 헨더슨과 코르다도 출전해 시즌 첫 승의 문을 다시 두드린다. /연합뉴스



광주FC 임원상·임민혁 K리그1 20R 베스트 11



임원상

임민혁

숨 막히는 3-3 승부가 연출된 광주FC와 전북현대와의 경기 K리그1 20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멀티골을 장식한 광주의 임원상과 멀티도움을 올린 임민혁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5일 K리그1 20라운드 6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남타전이 전개된 광주와 전북의 베스트 매치가 됐다. 두 팀은 전반 3분 나온 광주 임원상의 골을 시작으로 후반 18분 구스타보의 3-3 동점골까지 3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남쪽을 상대로 광주의 승점을 일궈낸 임원상과 임민혁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임원상은 전반 3분 선제골에 이어 2-2로 맞선 후반 12분 임민혁의 패스를 받아 빠른 스피드로 적지로 돌진, 원발로 역전골을 장식했다.

임민혁은 전반 44분 프리킥 상황에서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리며, 수비수 홍준호의 4년 만의 골에도 관여하면서 역시 베스트11이 됐다.

경기를 무승부로 만든 '동점골 주인공' 전북 구스타보도 베스트 11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20라운드 MVP에는 포항스틸러스의 송민규가 선정됐다.

송민규는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송민규는 이날 활약으로 이번 시즌 8골 3도움을 기록, 강력한 영플레이어상 후보로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베스트 팀에는 FC서울이 선정됐다.

서울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라이벌 수원 삼성과의 '슈퍼매치'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상대전에서 18경기 연속 무패(10승 8무) 행진을 이어나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US오픈 골프 악명 자자한 코스... 언더파 우승 나올까

좁은 페어웨이·병커에 유리할 그린 윈드풋 골프클럽 역대 언더파 2명 뿐 임성재·안병훈 등 한국선수 4명 출전

올해 두번째 메이저 골프 대회 제120회 US오픈이 오는 18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뉴욕주 매머락의 윈드풋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다.

총상금 1250만 달러(약 147억6400만원)에 우승 상금 216만 달러(약 25억5000만원)가 말해주듯 메이저 챔피언이라는 명예와 거액의 상금을 한꺼번에 될 기회다.

US오픈의 전통은 '코스와 싸움'이다. 대회를 주

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가장 잘 친 샷의 결과는 파'라고 여긴다.

올해 대회가 열리는 윈드풋 골프클럽은 US오픈 개최 코스 가운데 어렵기로 악명이 자자하다.

지금까지 다섯차례 US오픈을 이곳에서 치렀지만, 나흘 합계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낸 선수는 1984년 대회 때 퍼지 윌러(미국)와 그레그 노먼(호주) 둘 뿐이다. 둘은 4언더파로 연장전을 벌여 윌러가 우승했다.

1974년 이곳에서 치른 US오픈은 '윈드풋의 대학살'로 불린다. 우승 스코어가 무려 7오버파였다. 1라운드 때는 단 한명의 선수도 언더파 스코어를 내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이곳에서 치른 US오픈은 2006년이

다. 당시 우승자 제프 오길비(호주)는 5오버파로 정상에 올랐다. 출전 선수 평균 타수는 74.99타였

다. 윈드풋 골프클럽은 페어웨이가 평평하지만 아주 좁고 굵어 있는 곳이 많다.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15cm 길이의 러프가 발목을 잡는다. 불이 떨어질 만한 지점에 깊은 병커가 도사리고 있다. 티샷이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난관에 빠진다.

그린은 굴곡이 심하다. USGA는 이 그린을 대회에 대비해 단단하고 다지고 유리알처럼 빠르게 만들어 1m 퍼드도 허투루 치기 어렵다.

잭 니클라우스(미국)는 "내가 겪어본 가장 어려운 그린"이라고 말했다.

7477야드의 전장은 그리 길어 보이지 않지만,

US오픈 때는 파 5홀 2곳을 파 4홀로 바꿔 파70으로 경기하기가 장타자가 아니면 공략이 쉽지 않다. 2006년 대회 때 전장 7264야드보다 200야드가

장 더 길어졌다. 워낙 어려운 코스라서 우승 후보로는 장타와 정교함, 그리고 강인한 근성과 두둑한 배장을 두루 갖춘 최정상급 선수들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더스틴 존슨(미국), 윤 람(스페인), 저스틴 토머스(미국),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도박 사들이 꼽는 우승 후보 '빅4'다.

PGA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로는 강성훈(33), 안병훈(29), 김시우(25), 임성재(23) 등 4명이 US오픈에 출전해 2009년 PGA챔피언십 챔피언 양용은(47)에 이어 한국인 두번째 메이저 우승에 도전한다.

케빈 나, 김찬, 존 박(이상 미국), 대니 리(뉴질랜드) 등 교포 선수들도 힘을 보탠다. /연합뉴스

PGA 올해의 선수 존슨 신인상에는 셰플러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36·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9-2020시즌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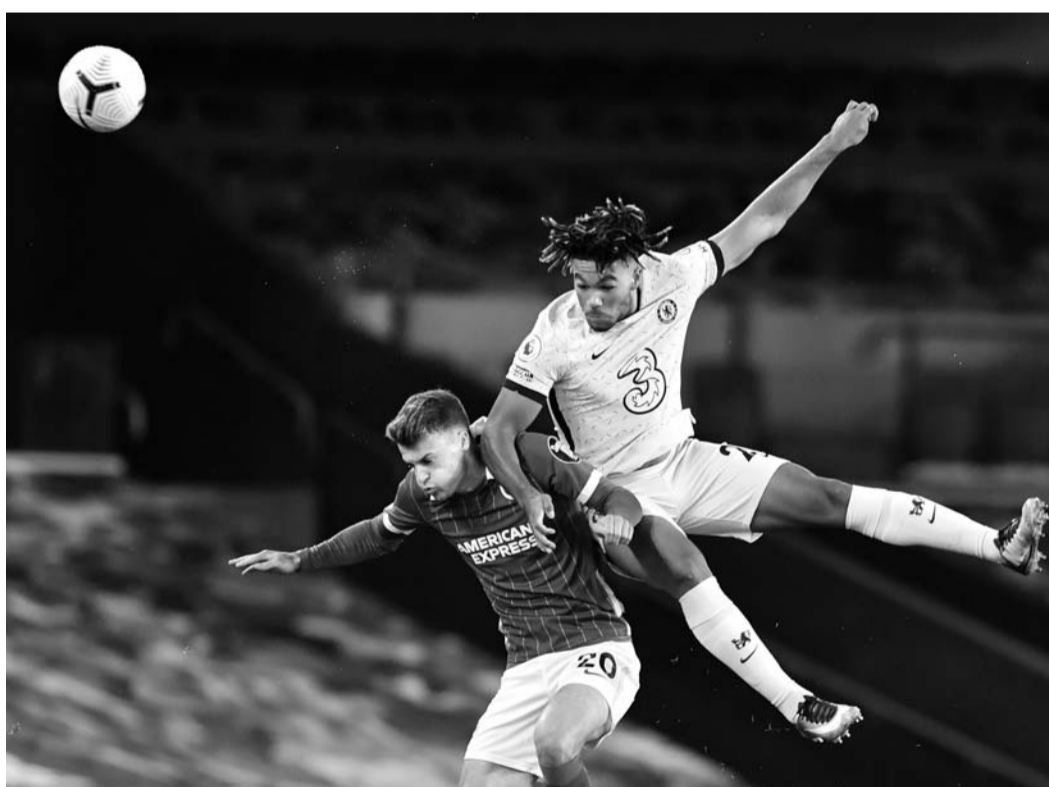
PGA 투어는 15일(한국시간) "2019-2020시즌 10개 대회 이상 출전한 회원들의 투표 결과 존슨이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존슨은 2019-2020시즌 트래블러스 챔피언십과 노던 트러스트, 투어 챔피언십 등 3승을 거두고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챔피언에 등극했다.

존슨이 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게 주는 상인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 수상자가 된 것은 2016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신인상 수상자에게 주는 아널드 파머 어워드는 스코티 셰플러(24·미국)에게 돌아갔다.

셰플러는 2019-2020시즌 우승은 없었지만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 공동 4위에 올랐고,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도 신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인 5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공중볼 주인공? 첼시 소속 리스 제임스(오른쪽)와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소속 솔리 마치가 14일(현지시간) 영국 브라이턴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볼을 다루고 있다. 첼시가 3-1로 이겼다. /연합뉴스

1490억 번 메시 올해도 축구선수 수입 1위 2위 호날두 1384억·3위 네이마르 1135억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축구 선수로 조사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20년 전 세계 축구 선수 수입 순위에서 1억2600만달러(약 1490억원)를 번 메시가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메시는 연봉 9200만달러(약 1088억원)를 받았고, 후원 계약을 통해 3400만달러(약 4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8년 같은 조사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를 제치고 축구 선수 연간 수입 1위에 오른 메시는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2위와 3위도 3년 연속 변함이 없었다.

올해 1억1700만달러(약 1384억원)를 번 호날두가 2위에, 9600만달러(약 1135억원)를 번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3위에 올랐다.

4위는 네이마르와 같은 팀에서 뛰는 킬리안 음바페가 차지했다.

지난해 축구선수 수입 7위(약 3000만달러)였던 음바페는 수입이 4200만달러(약 497억원)로 증가했는데, 특히 후원 계약을 통한 수입이 1000만달러(118억원) 가까이 늘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선수 중에는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3700만달러(약 438억원)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해 5위에 자리했다.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6위(3400만달러), 앙투안 그리즈만(바르셀로나)이 7위(3300만달러)에 이름을 올렸다.

2013년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하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으나 지난 시즌 16경기 출전에 그친 개러스 베일이 8위(2900만달러)를 차지했다.

2019-2020시즌 '독점왕' 트레블(분데스리가·포칼·UCL)을 달성한 바이에른 뮌헨의 로베르트 레만도 프스키는 총수입 2800만달러(약 331억원)로 9위, 맨유의 골키퍼 다비드 데헤아가 2700만달러(약 319억원)로 10위에 각각 랭크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지니어스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테넷
- 2관 뉴 유턴트
- 3관 지니어스독, 외 문화
- 4관 외 문화
- 5관 기기괴괴 성형수
- 6관 기기괴괴 성형수
- 9관 테넷, 지니어스독
- 7관 씨네커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오케이 마담
- 8관 씨네커를 에이바, 테스와 보낸 여름 더 렌탈: 소리없는 감시자 반포: 디텐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알폰스 도데의 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알폰스 도데의 별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정재형의 프롬나드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